

황금연휴 설캉스객에 방역 ‘빨간불’

〈설+호텔+바캉스〉

주요 관광지 항공권·호텔 등 예약 마감

광주·전남 지자체 ‘잠시 멈춤’ 동참 호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속에 설캉스(설+호텔+바캉스)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전방위 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잠시 멈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주요 관광지 방향하는 비행기표와 휴양지는 매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거듭 당부하며 요양병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진단검사 확대 행정명령 기간을 2월6일까지 2주 연장했다.

하지만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수가 늘면서 방역망 차단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20만7,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5일간 방문객 15만 3,132명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날짜별로 보면 29일 4만4,000명, 30일 4만3,000명, 31일 4만1,000명, 2월 1일 3만9,000명, 2월 4만명 등 하루 평균

4만1,400여 명에 이른다. 전남 주요 관광지 또한 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이 90%를 넘었다. 호텔, 콘도 등 주요 관광지 숙박업체도 설날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유치에 열안이 된 상황이다.

지역 숙박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6인 이상 숙박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인근 숙박업소들의 상황도 비슷하다”며 “타 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접촉 여부 확인, 발열체크, 숙소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관광객들의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견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귀성객의 방문에 대해 거

듭 양해를 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안정적인 예방접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 연휴의 철저한 방역수칙은 필수적인 요소이다”며 “명절 기간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질 경우 방역망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고향 방문·여행 자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다같이 세배해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27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세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제외 개정해야”

정의당 대책본부·민노총 광주본부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치·노동단체가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학동참사와 같은 중대사건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고, 여수의 실습생 흥군에게 부당한 작업지시를 내려 숨지게 한 사업주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허점투성이 된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두

번이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영구 퇴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만이라도 2월 임시회에 원포인트 상정해 즉각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당한 작업지시를 내려 숨지게 한 사업주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허점투성이 된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사흘째 600명대...광주 첫 400명 돌파

광주·전남에서 사흘째 확진자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419명, 전남 206명이 확진됐다.

3일 연속 600명대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주는 지난 25일 역대 최다치인 392명을 기록한 이후 이를 만에 신기록을 경신해 400명대를 돌파했다.

전날에는 광주 343명, 전남 294명 등 모두 637명이 신규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8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가족·지인

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47명·영암 11명·무안 11명 등 서부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수 91명·순천 24명·광양 17명 등 동부권의 확산세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외에 나주 26명, 진도 19명, 영광 11명, 화순·강진·장성 각 5명, 담양·고흥·보성 각 4명, 장흥 3명, 해남·함평 각 2명, 곡성·구례·신안 각 1명 등 완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고향의 정 그리워서”...청년들 귀성길 오른다

국토부, 작년 대비 귀성 17% 증가...31일 교통체증 극심

“부모님을 못 뵈지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요.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명절을 지내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27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유 모 씨(27)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고향인 광주에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예년 같았으면 가족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까봐 영상통화 등으로 아쉬움을 달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 홀로 명절을 보내는 외로움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부모님은 물론 고향 친구들도 못 뵈지 너무 오래됐고, 특히 어머니가 정말 외로워하셨다”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에 토요일(29일)자로 용산역에서 송정역 행 KTX를 예약했고, 확장 시절 매일 챙겨먹던 엄마의 따뜻한 밥상이 이젠 그리웠다”고 울먹였다.

2년 전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김 모 씨(26)도 “명절마다 다음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 2년이 훌쩍 지났다”며 “노쇠하신 할머니 걱정에 이번에는 내려가야 할 것 같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등 최대한 신경 써 광주에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오랜 시간 타향살이에 지친 청년들이 고향의 정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벌써부터 귀성길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따르면 올해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0만 명, 총 이동 인원은 2,877만 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409만 명)보다 17.4% 증가한 수치며, 설 당일

은 53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이 발표한 설 연휴 승차권 예매율을 보면 지난해 설과 추석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승차권은 일평균 8만5,000석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오는 2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3.1%(경부선 85.9%, 호남선 94.2%)이다. 귀경 예매율은 다음달 2일 상행선이 85.8%(경부선 90.0%, 호남선 94.8%)로 가장 높다.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할 시기는 귀성길이 오는 31일 오전, 귀경길은 다음달 2일 오후로 전망된다. /홍승현 기자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순조’

광주시 광산구의 공공항 소음피해 보상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일부터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따라 정해진 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다. /윤영봉 기자

광산구의 대상자는 3만1,000여명으로, 지난 26일까지 1만7,365명이 접수를 완료해 55%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상피해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은 95웨를 이상인 1종 지역은 월 6만 원, 90웨를 이상 95웨를 미만인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이고, 85웨를 이상 90웨를 미만인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다. /윤영봉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인삼인산 사포닌 CK 함량 비교 **비타민E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적용 실험 결과(4주 후 측정) 대상: 30~60세, 31명 / 시험기관: 미국메이커연구소(MEIKO)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